

사 설**앞치마 나눠주고, 선물주는 선거운동이라니**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예정인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지지자 2명

이 선거법을 어겨 적발됐다고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어겨 적발된 첫 사례다.

벌써 예비후보들의 주민접촉이 늘고 정당 후보의 경우 공천 경쟁이 불을 뿜고 있지만 때 이른 불법행위가 걱정스럽다. 더구나 이벤트를 벌여 경품을 주는 형식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금품을 준 행위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한 두 사람은 교육감 입후보 특정 예정자 지지자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둘 가운데 한 사람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교육감 후보의 캐리커처가 인쇄된 일회용 앞치마를 만들어 공짜로 나눠주거나, 사회관계망(SNS)에서 댓글 이벤트를 벌여 경품을 주는 등 모두 57만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

공 의사를 표명한 혐의라고 한다.

다른 한 사람 또한 몇몇 교육감 예비 주자

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사진과 경력이 실린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유권자에게 낯선 후보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여려는 시도로 보인다.

마침 이날은 스스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라며 출마예정자 셋이 단일후보를 내기로 발표한 날이다.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닐 터지만 스스로 내건 민주진보후보 이름에 딱절한 행위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되게 하려는 지지자의 마음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앞치마를 공짜로 나눠주고, 댓글 이벤트를 벌여 경품을 주었다고 하니 기가 차다. 이른바 고무신, 막걸리 선거가 사라진 지 언제든 아직도 이런 전근대적이고 파렴치한 선거운동이 있다는 건지 믿기지 않을 뿐이다. 철저히 조사해 법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다.

전북 중기정책자금 지원 늘려야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등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스마트 KOREA'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

전북 도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서부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734개 업체에 2,328억4,200만원이 지원, 목표대비 86%가 집행됐다. 전북지역 올해 예정예산 2,700억 원으로, 이는 전국 예정예산 5조 8,595억원 대비 4.6%에 달하는 규모이다.

최근엔 전북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IBK기업은행이 도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IBK기업은행에 예탁금을 예치하면 IBK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대출자금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8년 12월 처음으로 협약을 맺은 이후 이날 세 번째 재협약을 체결하며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년도 30억원 대비 10

올해 예정예산 2,700억 중 2,328억 집행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대부분 소진돼

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의 예탁금이 조성됐다. 대출금리 자동 감면율도 전년 대비 1.35%보다

0.42% 인상된 1.77%로 지원된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대출을 받는 기업은 기업별로 산정된 대출금리에서 1.77%를 자동 감면해 지원받고 기업 신용등급, 거래기업도, 담보 등에 따라 최대 1.40%까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한계점의 돌파구는 새로운 시장의 진출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한계를 느끼는 기업들은 과감히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도 있다.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은 새로운 인력 고용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

수출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노력 중에 있다. 하지만 기업의 개별적인 영업을 통한 수출 성사까지는 중소벤처기업 여건 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및 수출 유관기관에서는 수출 경쟁력 보유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려면 생산성이 높은 신규 진입 중소 업체들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야 함이 마땅하다.

**오늘의 각목****10월 마지막 밤****양 현 호**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 뭇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가수 이용이 부른 '잊혀진 계절'의 첫 소절이다. 매년 이맘때면 거리의 레코드가게에서 흘러나오곤 하던 이 노래를 떠올리게 된다.

특히 정지적으로 암울했던 1980년대에 청년기를 지낸 이들 중에는 이 노래를 들으면 떠오르는 각별한 추억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애잔한 선율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 노래는 발표된 지도 벌써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매년 10월이면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어떤 해에는 10월 31일 하루에 117회나 방송되어 기네스 북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렇다 할 히트곡이 없는 가수 이용은 이 곡 하나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10월에 집중되어 10월 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생각나는 다른 키워드는 할러윈데이(Halloween Day)이다. 언제가부터 우리에게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내는 또 다른 문화로 자리 잡은 할러윈데이의 기원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기독교에서 모든 성인의 날로 삼은 11월 1일 전날인 10월

31일 밤에 치러지는 전야제라는 것이다. 이 날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마녀나 잡귀 등이 나타난다고 믿어서 그들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하여 해골, 흡혈귀, 유령, 괴물 등의 복장을 하고 축제를 치른다. 할러윈데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호박으로 만든 잭오랜턴(Jack-o'-lantern)도 이들 해로운 귀신을 쫓는 정령을 의미한다.

할러윈데이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일상 회복 앞두고****할러윈데이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생각해봐야**

영미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지내는 연례행사로 우리나라에는 2000년을 전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근무하는 영미계 원어민 교사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던 행사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인들을 포함하는 연령층으로 확산되었다. 할러윈데이를 위한 이벤트, 축제, 유품 등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의 하나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이지만,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 세시풍속이나 명절의 의미도 모르면서 무분별하게 서양의 풍습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고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다시 10월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다. 대중의 관심은 노래 '잊혀진 계절'보다는 할러윈데이에 더 크게 모아지는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할러윈데이 특수를 누렸던 관련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가 전전긍긍하며 이를 돌파할 대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그나마 조

금식 잡혀가는 듯 한 감염자 확산 추세가 할러윈데이를 맞아 다시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을 앞두고 당국은 27일부터 1주일간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는 등 막바지 방역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역병과 대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상이 더욱 그립워진다. 이번 10월의 마지막 밤은 코로나19와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온누리**개 이야기****주인 살린 개의 모습에서 배우는 효심, 사랑, 충성**

신라 시대에 청웅현에 김개인이라는 자가 살았다. 개와 같이 귀가하는데 술에 취해 천변 풀밭에 잠이 들었다. 마침 들불이 번져와 김개인은 위급한 처지가 되었다. 개는 개울에 가서 몸을 물에 적셔와서 풀밭의 불을 끄려고 했다. 이 행동을 여러 번 반복했다. 나중에 김개인은 눈을 뜨고 나서 보니 주위에 낮은 불씨들이 꺼져가고 있고, 개는 타서 죽어 있었다.

이에 개의 무덤을 짓고 지팡이를 무덤 앞에 세워두었다. 이 지팡이에 씌이 나서

무성한 나무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1230년대 최자의 '보한집에' 채록되어있다. 오수 개인들 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리 없다. 몸에 물을 묻혀서 불을 끄는 행동은 어지간한 용기와 의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백구도 마찬가지다. 비가 오고 물에 빠진 주인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인간은 어떤가. 편안하고 기분 좋은 것만 찾는 현대인들은 점점 노인들을 모시려 하지 않는다. 노인뿐만 아니다. 누군가를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것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귀찮은 것은 애초에 멀리하거나 회피하려 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 효심이나 정성이 땅에 떨어지진지 오래다. 그것은 바로 자식한테 이어져서 결국 부패량이 되어 당하게 된다. 그러니 대를 이어 불효는 뿌리 깊게 뻗어 나가기 때문이다.

이 시대 인간이 할하지 못하는 효심, 충성, 신뢰, 사랑, 정을 자연한테 배운다. 배우려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배우려 하지 않고 마음을 닫고 지내는 데 있다.

(박정혜(심상 시치료 센터장·전주대 겸임교수))

입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MSJ 정읍산림조합** 대표번호 063)570-7500 **나는건강을 먹는다**

**로컬푸드마트**

☎ 063)570-7585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 넓은 주차장
로컬푸드, 축산, 수산, 베이커리, 야채, 청과

**산림조합금융**

☎ 063)570-7501

자산관리, 재산증식

예금, 적금, 대출, 정책자금, 공공금수입

**희망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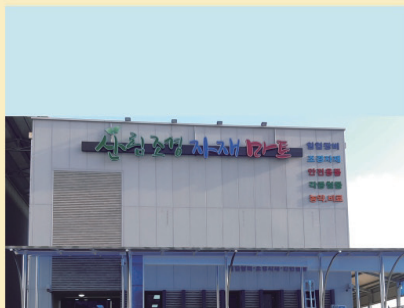
☎ 063)570-7577

화훼판매장, 유리온실

공기정화식물, 실내식물, 분재, 화분



★ 축하화분 배달가능 ★

**산림조경자재마트(철물점)**

☎ 063)570-7550

산림기계공구 원스톱제공

입업기자재, 조경자재, 철물, 비료, 농약, 안전용품, 각종공구 및 기계제품

**산림경영지도**

☎ 063)570-7514

산림사업의 관리대행

산림경영계획서류 대행, 임도 및 사방정비, 조림, 벌목

**티숨(슈카페)**

☎ 063)570-7576

차한잔의 여유. 만남의 쉼터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카페!
음악, 커피, 차, 음료, 디저트

www.fplove.or.kr

창간 21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월 받고~

315 농지연금지급01 1,160,000
415 농지연금지급02 1,160,000
0515 농지연금지급03 1,160,000
0615 농지연금지급04 1,160,000
0715 농지연금지급05 1,160,000
30815 농지연금지급06 1,160,000
30915 농지연금지급07 1,160,000
130915 농지연금지급08 1,160,000
130915 농지연금지급09 1,160,000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plb 농지은행 kF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작이나 임대료 인하여 추가수익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